

## 제37회 출판포럼

##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가와 출판계의 과제'

총론보단 각론, '온 국민 뜻 모아 치밀하게 준비하자'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임홍조)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가 주최한 제37회 출판포럼이 지난 12월 16일 출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가와 출판계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출판포럼 주제는 주빈국 행사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출판계가 뜻을 모아 준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한국출판학회 이종국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제와 토론은 대체로 총론보다 각론에 모아졌다. 먼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개최와 출판계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는 일본, 스페인, 아일랜드, 러시아, 아랍연합 등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 출판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11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김 교수가 정리한 출판계의 과제는 ● 편집디자인·장정·제본·인쇄술을 포함한 한국 출판물의 우수성 홍보 ● 출판인 전체의 단합 도모하는 계기 마련 ● 서울 국제도서전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서전이자 국제 저작권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 ● '한국의 명저 100선' 번역사업의 체계화를 통한 번역사업의 지속 ● '한글'의 우수성 적극 홍보 ● 저작권 수출 위한 에이전시 설립 적극 추진 ● 한류열풍의 부가가치 염두에 두고 주빈국으로서 강력한 트렌드 형성 ● 종이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에 대한 발전 상상 전시 ● 통역 등 주빈국 행사 현장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새로이 참가하는 출판인들의 사전교육 ●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출판계의 공감대 형성 등이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 출판사에 전화해 분위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시니컬했다"며 "언론사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내에 책 읽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출판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장도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프리마코리아 이구용 부장은 인력활용방안과 전시관 운용방안, 도서전시회 준비 및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인력활용방안에 있어서 "현장에서 외국인과 만나게 될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것은 기본이고, 출판을 이해하고, 저자와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고, 책의 내용을 꿰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명의 에이전시로 인세나 선인세 등에 대해 조율할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장은 자신의 발제에 대해 "우아하고 품위 있고 깊은 정서를 전달하는 목적보다 현실적이고 산업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 주빈국관에서 유교나 종묘, 석굴암, 정약용 등과 같이 지나치게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는 인물과 문화를 알리는 것보다 세계의 일반 대중독자들이 한국에 대한 사전의 깊은 지식 없이도 부담 없이 대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저작물들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전통복식과 궁중음식이 해외에 알려졌듯이 클래식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해외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바다출판사 김인호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 송영만(효형출판 대표) 상무이사, 조직위 황지우 총감독 등이 나왔다. 특히 황 감독은 전시장에 배치될 인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김기태 교수와 이구용 부장의 의견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취재 | 신동섭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